



# 병 동 속 보

## 4호

2021년 9월 1일 수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 / 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 / 노 재 옥

## 나는 간호사다.

## 하지만, 오늘도 싸움꾼으로 변해가는 나 자신을 발견 한다.

파업에 참가하는 간호사 A가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당신을 위해 손을 건넵니다.

함께 파업에 나가 진정한 간호사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요.

나는 싸움꾼입니다. 왜냐고요? 환자를 위해서 주치의와 싸우고 검사실과 싸우고 타부서와 싸웁니다. 그랬다가도 어느샌가 일에 파묻히다 보니 환자를 위하던 마음은 어느샌가 도망가고 환자와 싸우고 보호자와 싸웁니다. 싸움을 싫어했던 나는 어느새 프로 싸움꾼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싶고, 눈 맞추고 따스한 말 건네며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그런 친절한 간호사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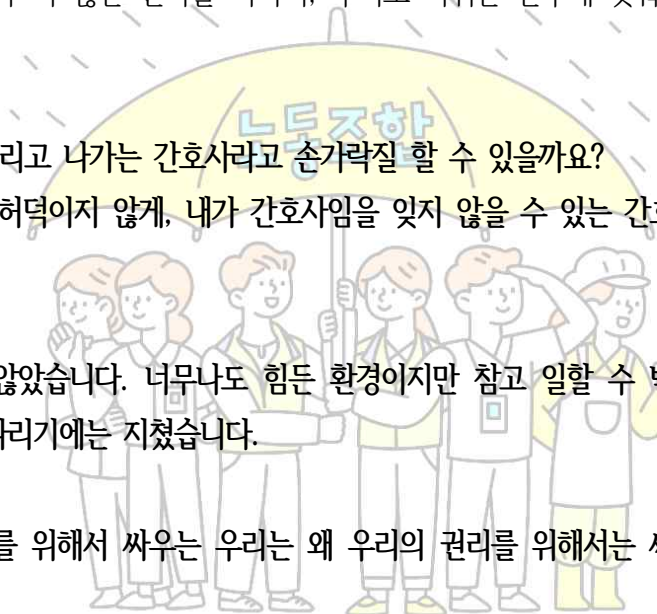
실상은 아파도 약에 의존해가며 일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조차 가지 못해 방광염을 달고 삽니다. 나는 밥조차 먹지 못했지만, 환자의 식사와 식후 약을 챙기고 있습니다. 환자의 검사가 밀리지 않게 직접 환자를 이송하고, 침상 정리를 합니다. 내가 봐야하는 환자보다 더 많은 환자를 보가며, 수시로 바뀌는 근무에 맞춰 내 일정을 바꿔가며 출근합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안다면 어떤이가 나에게 환자를 버리고 나가는 간호사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온전히 환자만 볼 수 있게, 너무 많은 환자 수에 허덕이지 않게, 내가 간호사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간호사이고 싶습니다.

병원에 힘들다고 말해도 병원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환경이지만 참고 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간호사일 수 있는 온전한 환경을 기다리기에는 지쳤습니다.

바뀌기만 기다리기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는 왜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는 싸우지 못하는 걸까요?



간호사도 노동자입니다. 해외간호사들은 간호사임이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왜 자랑스러울까요?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함께 움직여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어나가며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병원에서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항상 사직서를 품고 다니는 간호사가 아닌, 환자를 간호하다 환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닌 몸도 마음도 건강한 행복한 간호사로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때입니다. 우리는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환자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변화된 의료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를 간호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부디 오래도록 내가 간호사일 수 있게 함께 해 주세요. 임상을 사랑하는 간호사인 내가 임상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이번만은 모두를 위해 함께 싸워주세요.

## 파업 참가자 준비 지침

고대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파업은 9월 2일 06:30분부터 돌입합니다. 이에 9월 2일 D번 근무자부터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파업투쟁을 전개합니다. 이에 따른 파업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 9월 2일 D, E, N, S 근무자 모두 근무를 중단하며 파업에 참가합니다.

▲ 집결 일시 및 장소 : 오전 9시, 노동조합에서 공지한 장소로 집결합니다.

▲ 파업 일정 : 오전 9시 세종시로 이동하여 산별총파업 참가 후 오후 4시부로 복귀합니다.

▲ 파업은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진행합니다.

▲ 안전한 파업을 위해 방호복, 페이스섉�드, 마스크가 제공됩니다.

## 중간관리자 부당노동행위 신고바랍니다.

노동조합이 진행하는 파업은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입니다.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을 향한 중간관리자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될 시 노동조합은 기관장 및 행위 당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파업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노동조합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발언)

▲파업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 경우

▲부서장과 개인 면담을 통해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

▲문자 및 공지사항으로 파업 참가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 등을 당하거나 목격할 시 노동조합에 신고 바랍니다.